

# 제주바다 노무라입깃해파리 ‘비상’

### 지난 5월부터 출현... 해수부 어제 주의단계 특보 발령도, 해파리 피해예방 대책본부 가동속 예찰활동 강화

제주해역에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가 발령돼 물놀이객들의 쏘임사고와 어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16일 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해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 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시작했

다. 현재 제주 해역에 대량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출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남풍계열 바람과 강한 대마난류 영향으로 제주는 물론 전남 및 경남 연안까지 유입·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의단계 특보 발령에 따라 제주 특별자치도는 노무라입깃해파리 등이 대량 출현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피해예방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도는 해양수산부의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서 하는 해파리 피해예방 대책본부를 구성해 주의단계 특보 발령일인 16일부터 해파리 주의보 종료시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는 해파리 유입을 조기 발견해 대응할 수 있도록 어업인 등에게 대량 출현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피해예방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보는 100㎡ 당 1마리 이상이 발견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

할 때 발령된다. 노무라입깃해파리에 쏘이면 발진, 통증,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2년, 2013년, 2016년에 발령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7월 12일에 발령됐으나 제주 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위기특보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체계적인 대응으로 해파리로 인한 어업인 및 해수욕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 KCTV제주방송 공성용 회장 직원에 특정 종교 강요 사과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주)KCTV제주방송 공성용 회장이 공식 사과했다.

공 회장은 16일 사과문을 통해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제주도민과 사우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일을 통해 KCTV의 공적인 책임과 도민의 기대에 맞는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종교행사 중단 및 폐지, 암묵적인 자사상품 영업 독려 및 가입 독려 관행 폐지, 노사관계 법령 준수 등을 약속했다.

앞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공 회장이 직장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직원에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태윤기자



자리돔 사려는 사람들 16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는 이른 아침부터 갓 잡아올린 제철 자리돔을 사려는 사람들이 붐볐다. 강희민기자

## 농업창업·주택구입 용자 부정수급 여전

### 제주시, 2010~2018년 용자 대상자 중 19건·26억 대출금 회수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낮은 금리로 용자 지원하는 농업창업과 주택구입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악용하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0~2018년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비를 용자지원받은 96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농사를 짓지 않거나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등 부당사용한 19건을 확인해 용자금 26억 2700만원을 모두 회수했다. 농업창

업 관련이 15건에 24억3700만원, 주택구입이 4건에 1억9000만원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09건에 대해 304억5000만원이 용자 지원된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액의 8%에 해당하는 액수다.

지원액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에 미전입,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등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불법이 끊이지 않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비즈니스사업

은 2018년까지 지원하고 이후로는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제주로 이주해 곤충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창업해 열심히 농사짓는 이들이 많지만 일부에서 이를 악용하고 있어,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는 농촌비즈니스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용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문의: 마을활력과 728-2921~2. 문미숙기자

## ■ 어제 녹지국제병원 관련 2차 공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성 공방

제주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을 추진하다 무산된 녹지국제병원 관련 두 번째 재판에서도 녹지측은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으로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의료법 등을 들며 위법성과 투자자에 대한 신뢰원칙에도 반한다는 녹지측의 프레젠테이션은 당초 예고했던 30분을 훌쩍 넘겨 50분 가까이 이어지면서 이를 반박할 제주도측의 변론은 다음 공판으로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녹지측 변호사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녹지가 참여할 당시엔 의료기관 개설 계획이 없었는데,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반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며 “소송을 청구한 것은 도시사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갖지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재량은 없는만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으로 시작했다.

녹지측은 이어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국내법에 따라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내국인의 진료를 못하게 하

는 사례는 없고, 진료를 거부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며 “진료제한은 내국인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녹지측은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인정하는 발인 등 영리병원 설립에 적극적이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제주도가 2013~2014년 도의회에서 답변한 자료나 2015년 복지부로 보낸 문서, 제주도에서 발행한 홍보자료를 보면 영리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싸진 진료받는 내국인이 많지 않아 건강보험체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내에 778억원을 들여 2017년 8월 건물을 완공하고 도에 개원 허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도민 사회의 논란에 제주도는 속의형민주주의 공론화조사 방침을 정했고, 공론조사위원회는 ‘개설 불허’를 권고했지만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소송의 발단이 됐다. 조건부 허가에 반발한 녹지측이 법정 개원시한인 2019년 3월 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도는 같은 해 4월 17일 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3차 공판은 7월 21일 열려 피고인 제주도측 변호인들이 내국인 진료제한 등의 적법성을 변론하게 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60대 기간제 교사 수업중 사망 순직 인정해야”

전교조 제주지부 대책 촉구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60대 기간제 교사가 수업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교조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6일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60대 기간제 과학 교사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평소 A씨는 수업 중 마스크 사용으로 인해 호흡에 어려움을 느꼈고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 병행, 긴급돌봄교실 운영 지원 및 발열체크 등 업무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A

씨는 심장출혈로 인해 사망했는데, 이는 과중한 수업준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인재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와 교육당국은 A씨에 대해 공무상 재해는 물론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교사의 어려움은 전국적인 상황이다. 전례없던 온라인 수업 준비와 방역·교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등교 상황도 모자라 긴급돌봄지원과 행정업무까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 방역당국은 다시는 이런 일이 학생이나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감귤 신상품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례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상품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와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혜향 ..... 4년생

성전온주 ..... 4년생

황금향 ..... 4년생

탱자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

국내개발 우수한 [신상품]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제라온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국내산 레몬)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감,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온, 탕자묘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상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